

# 건축설계디자인 실무 종사자의 직업의식

The Perception of Professionalism of the Design Practitioners

Working in the Architectural Design Firms

주 저 자 : 임영숙

명지대학교 디자인학부 공간디자인전공 부교수

**Youngsook Lim**

Myongji University

## 1. 서론

-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2. 연구 방법 및 내용

## 2. 연구의 배경

- 2-1. 직업의 개념정의 및 요건
- 2-2. 선행연구 조사

## 3. 직업의식 조사 분석 결과

- 3-1. 조사대상의 특성
- 3-2. 직업 구성요건
- 3-3. 급여 결정요소
- 3-4. 승진 영향요소
- 3-5. 직업 자격요건
- 3-6. 직업 구성요건에 대한 회사의 권장·지원
- 3-7. 직업 선택요건
- 3-8. 직업 덕목요건
- 3-9. 직업윤리
- 3-10. 직업 몰입과 가치
- 3-11. 전문 직업성과 직업위신

## 4.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 (要約)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 건축설계디자인관련 실무 종사자들의 직업 현황과 직업의식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연구의 방법은 국내 건축설계디자인 관련회사에 근무하는 271명의 실무디자이너를 대상으로 설문문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직업윤리와 연구가 가장 중요한 직업구성요건이었으며, 교육인증제, 대학원교육, 자격증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도를 나타내었다. 급여, 승진, 개인능력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경력이었으며, 회사의 직업구성요건에 대한 지원과 권장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에 집중되어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아성취와 적성이 직업선택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으며, 원만한 직장생활을 위한 덕목으로 팀워크와 업무수행 능력이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개인의 기술이나 지적 소유권에 대한 의식이 매우 높았으며, 전문 직업성과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반면, 직업의 사회적 지위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 (주제어)

직업의식, 직업구성요건, 직업정체성, 건축설계 디자인

###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perception of professionalism of the design practitioners working in the architectural design firms. Data from the survey questionnaire were collected from 271 participants.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1) Professional ethics and research were the two most important components of the profession. 2) Experience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determining pay, promotion, and competency. 3) Job-related educational program was most highly supported by the company. 4) Participants' perceptions toward licensing and professional association were negative. 5) Self-accomplishment and aptitude were the main reasons to choose the profession. 6) Independent attitudes were found toward intellectual property. 7) Participants felt proud of their job but thought their social status was below medium.

### (Keyword)

Professionalism, Components of profession, Professional identity, Architectural design

## 1. 서론

###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 건축설계디자인관련 실무 종사자들의 직업 현황과 직업의식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사회구조 및 경제의 변화는 직업구조의 변화를 초래하며 이것은 궁극적으로 직업의식의 변화에도 영향을 끼친다. 직업에 대한 인식은 과거의 경제적 도구로서의 의미에서 벗어나 자아실현과 성취에 대한 욕구충족의 의미가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직업의식의 변화는 고학력자의 증가와 함께 전문직의 범위에 있어 다양화되고 확대되는 양상을 가져왔다.

실내디자인을 포함한 건축설계디자인분야는 최근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사회가치관의 변화와 더불어 대중매체 등을 통하여 전문직으로서의 인식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범위가 기존의 건축과 실내공간에 국한되지 않고 환경디자인, 전시, 경관디자인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공간디자인 개념으로서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것은 관련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와 직업구조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관련분야에 대한 미래직업으로서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자유무역협정 등을 통한 경제현황의 세계화의 흐름은 전문직의 국제화를 도모하고 있어, 건축설계디자인분야에서의 교육 및 실무에 대한 국제기준의 인가 제도의 도입을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디자인 분야 전반에 대한 전문 직업으로서의 정체성과 직업의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 그러므로 국내 건축설계디자인관련 실무종사자들의 현황 파악과 직업의식에 대한 조사 연구는 향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제도마련과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기초적 자료로서 그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 1-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이 연구는 국내 건축설계디자인 관련회사에 근무하는 실무디자이너를 대상으로 설문의 방법을 통하여 실시되었으며, 응답을 완결한 27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대상은 이 연구의 목적이 최근 대중적 관심과 교육 및 자격의 국제인증 등에 관한 안전이 부각되고 있는 건축설계디자인분야의 직업의식조사에 있으므로, 토목, 설비, 철골, 도장 및 시공 등의 건설업을 제외한 건축설계 및 실내디자인을 주요 업

무로 수행하는 건축설계디자인회사에 종사하는 실무 디자이너로 그 범위를 국한하였다. 회사 규모와 세부업무종류에 따른 직업의식의 차이에 대한 조사는 별도의 연구의 범주에 속하므로, 이 연구에서는 50명 이상 규모의 국내 수도권소재 건축설계디자인회사에 종사하는 실무디자이너의 전반적인 직업의식에 대한 조사 분석으로 연구의 범위를 제한하였다.

통계자료분석은 사회과학통계패키지(SPSS)가 활용되었다. 조사대상의 나이, 경력, 학력, 전공에 있어 빈도분석 결과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뉘어져, 통계적 해석을 위하여 경우에 따라 이들 항목에 대하여 유의한 두 그룹으로 나뉘어 분석되었다. 카이검정에 의한 세부항목 분석은 분량이 방대하여 표를 생략하고 본문에서 유의 값을 명기하고 설명하였다.

설문내용은 세 단계로 나뉘어 구성되었다. 첫째, 응답자의 성별, 나이, 전공, 경력, 학력, 자격면허, 협회활동 등에 대한 일반적 특성 및 직업현황에 대한 내용이며 둘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국제 기준에 의거한 주요 직업구성요건으로서 교육, 시험, 자격면허, 윤리강령, 전문기관 등에 대한 의식 정도를 알아보았다. 셋째, 통계청과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제시된 직업의식의 일반적 기준사항인 직업덕목, 직업윤리, 직업몰입, 직업가치, 전문 직업성, 직업위신 등에 대한 의식도 조사로 구성되었다. 직업의식에 대한 설문은 총 29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응답에 대한 척도는 1(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 2. 연구의 배경

### 2-1. 직업의 개념정의 및 요건

역사적으로 전문 직업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수 백년전 성직자, 법관, 의사직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들에 대한 전문직업의 정의는 “특정 분야에 있어 고객보다 그들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였다(Huges, 1963). 그러나 오늘날 전문 직업은 사회의 발전과 함께 분야가 광범위해지면서 그 정의에 있어서도 다양한 해석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문 직업을 규정하는 기준요건이 학자들에 의하여 논의 되어 왔으며(Abercrombie et al, 1984; Barber, 1963), 가장 보편적으로 교육, 시험, 윤리강령, 자격면허, 전문기관 등의 주요 직업구성요건을 바탕으로 구체적 기준요건이 설정되었다.

Moore(1970)는 위에서 언급된 전문 직업의 구성

요건에 대한 주요 기준으로서 정규직, 책임감, 정식 기관, 특수교육과 훈련을 통한 전문성, 헌신, 자율성 등을 제시하였다. 정규직은 아마추어와 구분하는 기준이 되며, 책임감이란 직업에서 요구되는 적절한 규정과 법규를 수용하고 동료들과 협정을 맺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정식기관은 취업조건과 자격기준에 대한 안전 등을 규정하는 기구의 역할을 하며, 전문성에 있어서는 단순히 경험의 축적과 구분되는 대학 교육을 포함한 정규교육을 포함한다. 헌신의 개념 정의는 개인의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 공익을 위한 봉사를 전제로 하며, 자율성이란 직업의 기술적 지식에 바탕을 둔 것으로 다른 직업과 분리되는 독자적 지식 영역의 확보를 의미한다. Abercrombie et al(1984) 와 Harmon-Vaughn(1997)은 위에서 제시된 기준요건 이외에 자격시험에 의한 객관적 능력의 검증과 CEU(계속교육)의 중요성을 추가적으로 포함하였다.

직업의식의 개념정의에 있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으나(한상근 외, 2002), 일반적으로 “어떤 개인이나 사회집단이 직업 또는 일에 대해 갖는 관념이나 느낌, 판단”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사용되고 있다. 직업의식에 대한 견해는 주로 두가지 방법으로 접근되고 있는데, 첫째는 사회적 지위와 위신, 직업윤리, 가치관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속성에 관한 객체로서의 직업에 대한 평가이며, 둘째는 직업주체로서 종사자의 소명, 전문 직업성등과 같은 직업에 대한 몰입 정도에 관한 것이다. 또한, 직업에서 지켜야 할 상호적 관계의 도리나 내·외적인 행위규준으로 정의되는 직업윤리가 직업의식의 주요 요건으로 인식되고 있다(직업능력개발원, 2006).

이 연구에서는 위에서 제시된 전문 직업으로서의 직업구성요건과 직업의식을 평가하는 객체적, 주제적 기준요건에 대한 개념 정의를 바탕으로 직업의식에 대한 설문조사 연구가 수행되었다.

## 2-2. 선행연구 조사

미국의 실내디자인관련 직업에 있어 일반 대중의 인식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Martin et al, 2001), 이들 직업을 전문직으로 인식은 하고 있으나, 의사와 같은 수준의 전문직으로 인식되고 있지는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의 주된 원인으로서 직업의 정확한 역할 즉, 주요 업무와 자격요건 등에 대한 명확한 인지의 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관된 정체성 부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건축설계디자인분야에서는 교육에서 실무

전반에 이르기까지 UIA(국제건축가연맹)를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통합적인 국제 기준을 설정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UIA는 전문 직업의 주요 요소인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대한 기본적 요건과 자격에 대한 기준 설정을 목적으로 ‘건축실무에 있어서 프로페셔널리즘의 국제기준에 관한 협정(안)’이 체결되었다. 구체적으로, 건축실무, 건축가, 직업요건, 교육인증제도, 자격면허, 윤리강령, 계속교육, 직능단체의 역할 등에 대한 정의 및 정책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국내 교육과 실무현장에서의 현실은 교육인증과 자격면허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고 있는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국제경쟁시대에 생존하기 위하여 이들 안전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이승복, 1998; 조성중, 2003).

실내디자인분야의 직업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와 논의는 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으며, IIDA(국제실내디자인연맹)를 중심으로 IDEC(미국실내디자인학회), FIDER(실내디자인교육인가기관), NCIDQ (실내디자인자격면허인가기관)등의 관련기관들이 협력하여, 독립적이며 통합된 지식기반의 구축에 노력해왔다. 구체적으로, 이들 기관들은 주로 실내디자인의 개념정의, 실무영역, 교육, 소양, 윤리강령 등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고 보급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실내디자인의 전문직으로서의 요건에 대한 연구 동향은 교육인가제도와 자격면허에 대한 통합기준 마련과 더불어 연구에 대한 중요성이 주요 안건으로 대두되고 있다. 교육요건에 있어서는 대학원교육이 세부 전문분야에 대한 지식함양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지만, 업무와 관련된 계속교육이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강조되고 있다(White & Dickson, 1994). 실내디자인 실무 종사자의 직업의식에 대한 선행연구(Birdsong & Lawlor, 2001)에 의하면, 직업구성요건의 중요도에 있어 교육인증제도, 연구, 자격면허, 대학원교육의 순이었으며, 이들 요건이 직장에서 얼마나 유리하게 작용하는지에 대하여도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회사의 이들 요건에 대한 권장과 지원에 있어서는, 자격면허에 대한 지원이 가장 높았으며, 연구, 업무관련교육, 대학원교육 등의 순으로 나타나 교육과 실무에 있어 전문 직업으로서의 제도적 확립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건축설계디자인 관련 직업의 직업정체성 확립을 위한 최근의 주요 화두는 관련학문과의 지식영역에 대한 정의규명에 대한 것이다. 건축설계디자인은 분야의 특성상 건축, 미술, 산업디자인, 실내디자인, 사회과학 등의 전문분야간의 긴밀한 교류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의 지식영역에 있어 공유영역과

독립영역에 대한 정의규명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Baker, 2005).

### 3. 직업의식 조사 분석 결과

#### 3-1. 조사대상의 특성

이 연구에 참여한 조사 대상의 총 표본 수는 271명이었으며, 성별 구성은 남자 57.6%, 여자 42.4%로 나타났다. 연령은 26세-35세가 전체 72.3%, 경력은 6년 미만인 경우가 59.8%, 7년-15년이 36.5%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학력은 전체 62.8%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으로 대체로 높은 학력을 보였으며, 전공에 있어 건축전공이 전체 62.0%로 가장 많았고, 실내디자인 18.1%, 산업디자인 5.5%, 주거환경디자인 4.1%, 환경디자인 1.8%, 순수미술 1.1%, 기타 7.4%의 순이었다. 이 결과는 외국의 관련 직업현황에 대한 연구결과(Chatrand, 1992)와 부합되는 내용으로서, 건축설계디자인관련 업종이 주로 20대-40대 초반의 젊은 연령층을 형성하며, 다른 직업군과 비교하여 학력이 높다는 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체의 57%이상이 직업과 관련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협회가입 활동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국제적 동향과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다(표 1 참조).

응답자 특성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남자의 경우, 여성보다 나이가 더 많았고, 건축전공인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건축전공인 경우가 많았고, 협회가입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 또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전공이 건축인 경우 협회가입활동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최근 교육 및 실무에 있어 국제인증제도의 도입이 선행적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건축 분야 전공자의 이들 안전에 대한 의식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표 2 참조).

#### 3-2. 직업 구성요건

직업 구성요건으로서 교육인증제, 대학원교육, 자격증, 연구, 직업윤리 등의 중요도에 대한 의식 정도를 알아본 결과, 직업윤리가 평균 4.18로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었으며, 연구 3.84, 교육인증제 3.39, 대학원교육 3.21, 자격증 3.04의 순이었다.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과 직업 구성 요건에 대한 의식정도와의 상관관계에서, 대학원 교육과 자격증에 있어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학력

이 높을수록 대학원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나이가 많고, 경력이 높을수록, 또한 건축 전공인 경우, 자격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다(표 3 참조). 그러나 대학원교육과 자격증은 직업구성 요건의 중요도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인 항목으로써, 학력과 경력이 높을수록 인식도가 높다는 결과는 이들 안전에 대한 보편화된 인지가 부족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표 1] 조사대상의 특성

구분	빈도(%)
성별	남 156(57.6)
	녀 115(42.4)
나이	25세이하 10(3.7)
	26-35 196(72.3)
	36-45 63(23.2)
	46세이상 2(0.7)
	6년미만 162(59.8)
경력	7년-15년 99(36.5)
	16년-20년 9(3.3)
	20년이상 1(0.4)
	고등학교졸업 1(0.4)
학력	2년제대학졸업 27(10.0)
	4년제대학졸업 142(52.4)
	대학원재학 9(3.3)
	대학원졸업 92(33.9)
	건축디자인 168(62.0)
전공	실내디자인 49(18.1)
	주거환경디자인 11(4.1)
	산업디자인 15(5.5)
	환경디자인 5(1.8)
	순수미술 3(1.1)
	기타 20(7.4)
	자격증
아니오 156(57.6)	
협회활동	예 114(42.1)
	아니오 157(57.9)
전체	271(100)

[표 2] 조사대상 특성간의 상관관계

구분	Pearson 상관계수												
	성별	나이	경력	학력	전공	자격증	협회활동						
성별	1.00												
나이		-0.210**	1.00										
경력			-0.076	.654**	1.00								
학력				-0.004	.051	.002	1.00						
전공					-0.358**	.100	.087	.138*	1.00				
자격증						-0.109	-0.027	-0.040	.032	-0.057	1.00		
협회활동							.081	-0.119	-0.110	-0.294**	-0.190**	.025	1.00

\*p<.05 \*\*P<.01

[표 3] 직업구성요건에 대한 의식도

구분	평균(편차)	Pearson 상관계수				
		성별	나이	경력	학력	전공
교육인증제	3.39(.924)	.016	-.042	.021	.037	.011
대학원교육	3.21(.828)	.016	-.018	.021	.157**	-.012
자격증	3.04(.958)	-.088	.168**	.230**	-.036	.157**
연구	3.84(.835)	.047	.035	.069	.066	-.085
직업윤리	4.18(.812)	.048	.105	.081	.048	.006

\*\*P<.01

### 3-3. 급여 결정요소

학력, 자격증, 경력에 따라 급여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경력이 전체 86.3%의 비율로 급여에 가장 중요한 결정요소로 생각되었다. 학력은 57.2%가 '예'라고 응답을 한 반면, 자격증에 대해서는 44.3%가 '아니오'라고 응답하여 가장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표 4 참조).

응답자 특성에 따른 의견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경력과 학력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경력이 7년 이상인 경우( $\chi^2=10.722$ ,  $p<.005$ ), 학력에 따라 급여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더 높았으며, 경력이 7년 이상이고( $\chi^2=8.568$ ,  $p<.014$ ), 학력이 4년제 대학 졸업 이하인 경우( $\chi^2=16.427$ ,  $p<.000$ ), 자격증이 급여에 차이를 준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또한, 학력이 대학원 재학 이상인 경우( $\chi^2=16.427$ ,  $p<.000$ ), 경력에 따라 급여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 많았다.

[표 4] 급여 결정요소에 대한 의식도

구분	빈도(%)			
	예	아니오	모르겠다	전체
학력	155(57.2)	54(19.9)	62(22.9)	271(100)
자격증	76(28.0)	120(44.3)	75(27.7)	271(100)
경력	234(86.3)	8(3.0)	29(10.7)	271(100)

### 3-4. 승진 영향요소

학력, 자격증, 경력, 성별이 승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대한 의견에 있어, 급여 결정요소와 마찬가지로 경력이 평균 4.05로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였으며, 학력 3.38, 성별 2.89, 자격증 2.73의 순이었다. 구체적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남자의 경우, 나이가 많을수록, 경력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그리고 건축전공의 경우, 자격증이 승진에 영향

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높았다. 또한, 남자보다 여자가 성별이 승진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표 5 참조).

[표 5] 승진 영향요소에 대한 의식도

구분	평균(편차)	Pearson 상관계수				
		성별	나이	경력	학력	전공
학력	3.38(1.010)	.057	.076	.100	-.064	-.024
자격증	2.73(.933)	-.124*	.127*	.129*	-.124*	.120*
경력	4.05(.734)	.011	.011	.042	-.040	-.080
성별	2.89(1.021)	.265**	-.075	.017	-.045	-.118

\*P<.05 \*\*P<.01

### 3-5. 직업 자격요건

직업에 대한 주요 자격요건으로서 학력, 자격증, 경력이 개인의 능력을 어느 정도 보여준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경력이 평균 3.90으로 개인의 능력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었으며, 학력이 3.15, 자격증이 2.71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학력과 경력의 경우, 응답자 특성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나이와 학력이 높을수록, 학력이 개인의 능력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나이와 경력이 많을수록 경력이 개인의 능력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직업에 대한 주관적 자질 평가의 경향을 보였다(표 6 참조).

[표 6] 직업 자격요건에 대한 의식도

구분	평균(편차)	Pearson 상관계수				
		성별	나이	경력	학력	전공
학력	3.15 (.826)	.100	.156*	.080	.251**	-.081
자격증	2.71 (.893)	.059	.077	.075	.009	.037
경력	3.90 (.777)	-.069	.140*	.126*	-.107	-.045

\*p<.05 \*\*P<.01

### 3-6. 직업구성요건에 대한 회사의 권장·지원

자격증, 대학원교육, 연구, 협회가입활동, 업무관련교육 등의 직업 구성요건에 대한 회사의 권장과 지원여부를 알아본 결과, 업무관련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전체 60.1%가 '예'라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격면허에 대하여는 44.3%가 '아니오'라고 응답하여 가장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대학원교육과 협회가입활동에 대

하여는 '아니오' 와 '모르겠다'가 38.7%와 39.1%등으로 비슷한 비율이었다(표 7 참조). 이 결과는 회사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에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반면, 직업의 전문성과 관련된 기준요건들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이 낮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 원인으로는 국내의 현황이 이들 안전에 대한 제도적 기반과 관리의 기능이 부재하여, 국제 기준과 요건의 도입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과 유익을 현실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국제 인증기준의 중요한 요건으로 대두되고 있는 이들 안전에 대한 회사차원에서 인식 제고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7] 직업 구성요건에 대한 회사의 권장·지원

구분	빈도(%)			
	예	아니오	모르겠다	전체
자격면허	69(25.5)	120(44.3)	82(30.3)	271(100)
대학원교육	60(22.1)	105(38.7)	106(39.1)	271(100)
연구	99(36.5)	89(32.8)	83(30.6)	271(100)
협회가입활동	61(22.5)	105(38.7)	105(38.7)	271(100)
업무관련교육	163(60.1)	44(16.2)	64(23.6)	271(100)

### 3-7. 직업 선택요인

[표 8] 직업 선택요인

구분	빈도(%)							
	적성	수입	안정성	장래성	인지도	자아성취	전체	
성별	남	56 (35.9)	5 (3.2)	5 (3.2)	23 (14.7)	5 (3.2)	62 (39.7)	156 (100)
	여	41 (35.7)	3 (2.6)	2 (1.7)	16 (13.9)	3 (2.6)	50 (43.5)	115 (100)
연령	35세 이하	75 (36.4)	3 (1.5)	6 (2.9)	32 (15.5)	7 (3.4)	83 (40.3)	206 (100)
	36세	22 (33.8)	5 (7.7)	1 (1.5)	7 (10.8)	1 (1.5)	29 (44.6)	65 (100)
	이상	58 (35.8)	3 (1.9)	5 (3.1)	26 (16.0)	6 (3.7)	64 (39.5)	162 (100)
경력	6년 이하	39 (35.8)	5 (4.6)	2 (1.8)	13 (11.9)	2 (1.8)	48 (44.0)	109 (100)
	7년	58 (34.1)	3 (4.1)	5 (2.9)	25 (14.7)	6 (3.5)	69 (40.6)	170 (100)
	이상	39 (38.6)	1 (1.0)	2 (2.0)	14 (13.9)	2 (2.0)	43 (42.6)	101 (100)
학력	4년제	33 (32.0)	3 (2.9)	1 (1.0)	24 (23.3)	2 (1.9)	40 (38.8)	103 (100)
	대졸	64 (38.1)	5 (3.0)	6 (3.6)	15 (8.9)	6 (3.6)	72 (42.9)	168 (100)
	대학원 재학 이상	97 (35.8)	8 (3.0)	7 (2.6)	39 (14.4)	8 (3.0)	112 (41.3)	271 (100)
전공	실내 디자인	33 (32.0)	3 (2.9)	1 (1.0)	24 (23.3)	2 (1.9)	40 (38.8)	103 (100)
	건축	64 (38.1)	5 (3.0)	6 (3.6)	15 (8.9)	6 (3.6)	72 (42.9)	168 (100)
전체	97 (35.8)	8 (3.0)	7 (2.6)	39 (14.4)	8 (3.0)	112 (41.3)	271 (100)	

직업선택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는, 자아성취가 41.3%, 적성이 35.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이 외에, 장래성은 14.4%, 직업 인지도와 경제적 수입이 각각 3.0%, 직업 안정성은 2.6%로 낮은 분포를 보였다(표 8 참조). 이것은 선행연구(직업능력개발원, 2006)에서,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수입이나 안정성보다 보람과 자아성취에 대한 가치의 비율이 높아졌다는 최근의 일반적인 직업 선호 동향을 반영하는 것이다.

직업선택 요인에 대한 응답자 특성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전공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 $\chi^2=12.317, p<.031$ ), 응답자 모두 자아성취와 적성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으나, 실내디자인 및 기타 전공의 경우 장래성에 대한 비율이 23.3%로 건축전공의 8.9%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내어, 실내디자인 및 기타 전공자의 경우 건축전공자보다 상대적으로 직업의 장래성에 대한 표면적 기대가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 3-8. 직업 덕목 요건

[표 9] 직업 덕목요건

구분	빈도(%)						
	업무능력	팀워크	의사소통	직무태도	성격	전체	
성별	남	44 (28.2)	56 (35.9)	23 (14.7)	30 (19.2)	3 (1.9)	156 (100)
	여	40 (34.8)	42 (36.5)	12 (10.4)	17 (14.8)	4 (3.5)	115 (100)
연령	35세 이하	60 (29.1)	78 (37.9)	27 (13.1)	37 (18.0)	4 (1.9)	206 (100)
	36세	24 (36.9)	20 (30.8)	8 (12.3)	10 (15.4)	3 (4.6)	65 (100)
	이상	47 (29.0)	58 (35.8)	26 (16.0)	29 (17.9)	2 (1.2)	162 (100)
경력	6년 이하	37 (33.9)	40 (36.7)	9 (8.3)	18 (16.5)	5 (4.6)	109 (100)
	7년	55 (32.4)	61 (35.9)	16 (9.4)	32 (18.8)	6 (3.5)	170 (100)
	이상	29 (28.7)	37 (36.6)	19 (18.8)	15 (14.9)	1 (1.0)	101 (100)
학력	4년제	45 (43.7)	30 (29.1)	11 (10.7)	16 (15.5)	1 (1.0)	103 (100)
	대졸	39 (23.2)	68 (40.5)	24 (14.3)	31 (18.5)	6 (3.6)	168 (100)
	대학원 재학 이상	84 (31.0)	98 (36.2)	35 (12.9)	47 (17.3)	7 (2.6)	271 (100)
전공	실내 디자인	45 (43.7)	30 (29.1)	11 (10.7)	16 (15.5)	1 (1.0)	103 (100)
	건축	39 (23.2)	68 (40.5)	24 (14.3)	31 (18.5)	6 (3.6)	168 (100)
전체	84 (31.0)	98 (36.2)	35 (12.9)	47 (17.3)	7 (2.6)	271 (100)	

성공적인 직장생활을 위한 직업덕목의 다양한 요건에 있어, 팀워크가 36.2%, 업무수행능력이 31.0%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었으며, 이 외에 성실성과 정직한 직무태도가 17.3%, 의사소통능력이 12.9%,

성격이 2.6%로 소수의 의견이 있었다(표 9 참조). 응답자 특성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전공( $\chi^2=13.539$ ,  $p<.009$ )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전공이 실내디자인 및 기타인 경우, 업무수행능력이 43.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건축의 경우 팀워크가 49.5%로 가장 중요한 직업덕목으로 생각되었다. 이것은 건축전공의 다수가 남성인 것을 고려할 때, 최근의 일반 직장인의 직업의식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 결과(직업능력개발원, 2006)와 부합되는 내용으로서, 한국인의 경우 전형적인 남성중심의 직장환경이 일몰입보다 조직몰입의 성향이 강하여, 직장 내에서 사적인 관계형성을 위한 환경조성이 일 만족도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자신의 직업이 능력보다 학연·지연이 더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대하여, 평균 3.29로 학연·지연이 대체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남자보다 여자가 더욱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알 수 있었다(표 10 참조).

[표 10] 학연·지연에 대한 의식도

구분	평균(편차)	Pearson 상관계수				
		성별	나이	경력	학력	전공
학연·지연	3.29 (.958)	.132*	-.034	-.050	-.062	.021

\* $p<.05$

### 3-9. 직업윤리

[표 11] 개인의 기술·지식 소유권에 대한 의식도

구분		빈도(%)			
		가지고 나갈수 있다	경우에 따라 가지고 갈수있다	가지고 가서는 안된다	전체
성별	남	52(33.3)	93(59.6)	11(7.1)	156(100)
	여	38(33.0)	67(58.3)	10(8.7)	115(100)
연령	35세 이하	68(33.0)	125(60.7)	13(6.3)	206(100)
	36세 이상	22(33.8)	35(53.8)	8(12.3)	65(100)
경력	6년 이하	53(32.7)	99(61.1)	10(6.2)	162(100)
	7년 이상	37(33.9)	61(56.0)	11(10.1)	109(100)
학력	4년제대졸 이하	56(32.9)	101(59.4)	13(7.6)	170(100)
	대학원재학 이상	34(33.7)	59(58.4)	8(7.9)	101(100)
전공	실내디자인	33(32.0)	66(64.1)	4(3.9)	103(100)
	건축	57(33.9)	94(56.0)	17(10.1)	168(100)
	전체	90(33.2)	160(59.0)	21(7.7)	271(100)

직업윤리와 관련하여, 자신이 개발한 회사의 기밀사항이나 기술을 회사를 그만둘 때 가지고 나가는 것에 대한 생각을 알아 본 결과, 전체 59.0%가 '경우에 따라 가지고 나갈 수 있다', 33.2%가 '가지고 나갈 수 있다'로 응답하였으며, '가지고 나가서는 안된다'고 응답한 경우는 7.7%로 매우 낮은 비율을 보였다(표 11 참조). 반면, 자신이 종사하는 직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전반적인 직업윤리에 있어서는 평균 3.09로 보통으로 평가하였으며, 응답자 특성간의 상관관계는 없었다(표 12 참조). 이 결과는 건축설계디자인 관련 종사자들이 개인의 기술 및 지식 소유권에 대한 의식이 매우 높으며 이것은 전반적 직업윤리의식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2] 직업윤리에 대한 평가

구분	평균(편차)	Pearson 상관계수				
		성별	나이	경력	학력	전공
직업윤리	3.09(.784)	-.116	.018	.019	-.064	.079

### 3-10. 직업 몰입과 가치

직업 몰입의 정도에 있어, 현재 직장에서 계속 경력을 쌓아나가고 싶다는 의견이 평균 3.96으로 대체로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으며, 가능하다면 한 직장에서 평생 일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 3.14로 보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앞서 다른 의식도 조사에서, 직업에 있어 경력에 대한 비중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을 부연해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상관관계 분석에서, 응답자 특성과 한 직장에서의 근무지속성간의 유의한 상관을 보였는데, 나이가 많을수록, 경력이 높을수록, 전공이 건축인 경우 한 직장에서 평생 동안 일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더 높았다(표 13 참조).

직업가치의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한 의식을 알아 본 결과,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가장 높은 평균 3.78이었으며, 사회적 영향력에 있어서는 평균 3.31, 사회에 봉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평균 3.21로 대체로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표 14 참조).

[표 13] 직업몰입

구분	평균(편차)	Pearson 상관계수				
		성별	나이	경력	학력	전공
경력지속성	3.96(.783)	-.084	.113	.077	.084	-.056
근무지속성	3.14(1.078)	-.109	.185**	.164**	-.001	.163**

\*\* $p<.01$



[표 14] 직업가치에 대한 평가

구분	평균(편차)	Pearson 상관계수				
		성별	나이	경력	학력	전공
사회영향력	3.31(1.018)	.105	-.026	.061	-.010	-.068
사회봉사	3.21(.988)	-.020	-.009	.009	-.007	.031
자랑스러움	3.78(.780)	-.019	-.006	-.015	.030	-.033

### 3-11. 전문 직업성과 직업위신

전문직에 대한 정체성과 직업의 사회적 위신에 대한 의식을 살펴본 결과, 자신의 직업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요구하는 전문직이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평균 4.21로 매우 높았으며, 자신의 직업을 천직으로 생각하는 정도도 평균 3.58로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문 직업성에 대한 의식도가 매우 높은 것과 반대로, 자신이 종사하는 직업의 전반적인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는 평균 2.84로 보통 이하의 평가를 하였다. 직업위신에 대한 의식 정도는 성별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자신의 직업이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 많았다. 이것은 직업선택에 있어 장래성에 대한 기대치가 여성이 더 높았던 결과와 더불어, 건축설계디자인 관련분야가 여성에게 직업으로서 더 긍정적인 사회적 가치 인식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표 15 참조).

[표 15] 전문 직업성과 직업위신에 대한 의식도

구분	평균(편차)	Pearson 상관계수				
		성별	나이	경력	학력	전공
전문직	4.21(.778)	-.092	.045	.003	.004	-.029
천직	3.58(.890)	-.051	.015	.029	-.010	.069
직업위신	2.84(.818)	.152*	-.087	-.043	-.052	.003

\*p<.05

## 4.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실내디자인을 포함한 건축설계디자인에 대한 전문 직업으로서의 사회적 인식의 증가와 함께, 이들 분야에 대한 국제인증기준의 세계화의 흐름에 부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의 모색을 위한 기초적 자료로써, 국내 건축설계디자인관련회사에 종사하는 실무디자인인들의 현황 및 직업의식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종합적으로, 건축설계디자인 분야의 국내 직업 현황은 성별구성과 전공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고정

관념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직업의식에 있어 전반적으로 경력이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인식되고 있었으며, 자격증취득과 협회가입활동 등에 대한 객관적 직업요건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직에 대한 사회인식의 보편화를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직업기준 및 요건의 제도화가 전제되어야 함을 고려할 때, 이 안건은 앞으로 국내 관련분야의 나아가야할 방향 설정에 있어 가장 시급한 문제로 다루어져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 결과 도출된 구체적 내용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1) 직업현황에 있어, 남성의 비율이 높고, 건축과 실내디자인 전공이 다수를 차지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이미지가 직업구성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전공에 있어, 산업디자인, 환경디자인 및 기타 전공 등의 다양성을 나타내어 건축설계디자인 종사자의 구성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최근의 경향을 다소 반영하였다. 또한, 나이에 있어 26세-35세의 젊은 연령대를 구성하고, 70%이상이 4년제 대학 이상으로 높은 학력을 보여, 외국의 관련분야의 현황과 부합하는 결과를 보였다.

(2) 자격증취득과 협회가입활동 비율이 50%이하의 매우 낮은 비율을 보여, 이들 요건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국제동향에 상반되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의식변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마련이 요구된다.

(3) 직업구성요건에 있어, 직업윤리와 연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었으며, 교육인증제, 대학원교육, 자격증에 대하여 비교적 낮은 인식을 보였다.

(4) 급여, 승진, 개인능력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경력이었으며, 그 다음이 학력, 자격증의 순서로 나타났다.

(5) 회사의 직업구성요건에 대한 지원과 권장여부에 대하여,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가장 많았으며, 자격증에 대한 지원이 가장 낮았다.

(6) 자아성취와 적성이 직업선택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으며, 실내디자인 및 기타 전공자의 경우 장래성이 부가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원만한 직장생활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건축전공자의 경우는 팀워크가, 실내디자인 및 기타 전공자의 경우 업무수행 능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7) 개인의 기술이나 지적소유권에 대한 의식이 매우 높았으며, 자신이 종사하는 직장의 직업윤리에 대한 의식은 보통의 의견을 보였다.

(8) 전문 직업성과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높은 반면, 직업의 사회적 지위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향후연구로서,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직업에 대한 심층적 현황 파악을 위하여 전문직으로서 건축설계디자인에 대한 일반대중의 사회인식 조사가 필요하며, 나아가 건축설계디자인이외에 다른 디자인분야의 실무디자이너와 교육, 연구 등의 관련 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좀 더 다양한 비교평가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연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국제화의 시대에 국내 관련업계가 주목해야할 가장 시급한 안건인 교육인가와 자격면허에 대한 주체적 인식개선 뿐만 아니라, 제도적 정책개발의 모색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이승복. (1998). [국제동향]건축실무에 있어 프로페셔널리즘의 국제기준에 UIA협정(안). *대한건축학회지*, 42(8), 23-27.
- 조성중. (2006). 건축계가 당면한 국제문제의 이해, 건축교육 개편의 현황과 전망. *건축*, 12-15.
- 직업능력개발원. (2006). 한국인의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 연구보고서.
- 한상근 외. (2002). 한국인의 직업의식조사 (II)[기본연구 02-41].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Abercrombie, N., Hill, S., & Turner, B. (1984). *The Penguin Dictionary of Sociology*. New York: Penguin Books, Ltd.
- Baker, A. (2005). Knowledge in interior design. *Journal of Interior Design*, 31(1), 13-21.
- Barber, B. (1963). Some problems in the sociology of the profession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Arts and Sciences*, 94(4), 669-688
- Birdsong, C., & Lawlor, P. (2001). Perceptions of professionalism: Interior design practitioners working for the top 100 firms. *Journal of Interior Design*, 27(1), 20-34.
- Chartrand, H. (1994). *Architecture & Design Arts Occupations 1940-1990*. Washington D.C.: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 Harmon-Vaughn, B. (1997, 01/02). Stakeholders in our future. *Interiors & Sources*, 106.
- Hughes, E. C. (1963). Profession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Arts and Sciences*, 92(4), 655-668.
- Martin, C., Guerin, D., & Ginthner, D. (2001). The public's opinion of architecture, interior decoration, and interior design. *IDEC International Conference Abstract*, 30-31.
- Moore, W. E. (1970). *The Professions: Roles and rules*.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White, A., & Dickson, A. (1994). Practitioners' perceptions of interior design graduate education and implications for the future. *Journal of Interior Design*, 20(1), 27-35.